

在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 실질적인 남북 경험의 출발점

김종일 / 모스크바대학교 인구-노동문제연구소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은 우리의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수준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은 노동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어 있고, 노동 계약 종료 후 러시아에 머물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주체사상보다는 경제 회생에 협안이 되고 있는 김정일체제가 이를 간접적으로 묵인할 것이라는 사실과 러시아 내에 진출한 북한의 고품질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풍부한 자원 등의 개발은 남북한과 러시아 3국에 공히 플러스적 요인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고품질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통일 한국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머리말

19

98년도 통일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분단의 현실이 주는 고통만큼이나 통한스럽다.

북한의 김정일이 기존의 권력을 확보·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헌법이 정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에 북한에서 펼쳐진 그의 냉엄하고도 차분한 행동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유교적 관점에서 김정일은 효자이며, 아버지인 김일성의 뒤를 이을 최고의 덕목을 갖춘 후계자라는 인상을 다분히 주고 있다. 그런 행동 양식은 비록 그가 현대 국가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부자간 권력 양도에 따른 세계적인 조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호소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 같다. 3년이라는 반의사 자숙 기간 동안에 그가 얻어낸 득과 실은 명확하고도 실제적인 셈이다.

미국과의 끊임없는 접촉은 남한 내에서 대북 정책의 책임 소재를 물을 정도로까지 성공적이었으며, 급하지 않은 그의 완만한 대외 정책은 부분적 경제 개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민을 위해서라면 체면은 버릴 수 있다는 자세를 이번 식량난에서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인도주의적 지도자임을 내외에 천명하려 노력하였다.

그런 와중에 황장엽氏와 장승길氏의 망명은 실로 북한 내부와 국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황장엽氏의 망명은 북한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효과도 적잖히 나타나기까지 했으며, 장승길 대사의 망명은 흐트러지고 있는 북한의 해외외교망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여지를 김정일에게 줬다는 데서 거시적 측면에서 김정일은 득을 얻은 셈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거물급 인사들의 망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강·온 양 측면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해외 주재원 및 노동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무게없는 일반 노동자들의 망명이 비효과적일 것이므로, 남한측도 일반 노동자 및 하위급 북한 해외 주

재원들의 망명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음이 분명하다.

불안정하고도 어찌면 국제적인 대규모 난민 사태 발생에 대하여 흡수 통일을 꿈꾸는 우리는 적절하고도 합리적이며 포용성있는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개방의 몸짓은 되려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는 인상마저도 풍기게 만들고 있다. 현재 북미간·북일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와 수교의 움직임은 남한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나친 대미 의존의 대북 정책 시각의 결과는 혼자 당하는 격이 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관계 정상화와 선린관계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층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경제적 격변기에서 발전이라는 가도에 놓인 러시아와의 경험은 한반도에서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구체적이고 남한·북한·러시아가 공동의 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在러 북한 노동자를 이용한 경제 교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在러 북한 노동자 현황

在러 북한 노동자 수

통일을 목전에 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러 북한 노동자 및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 역시 북한 노동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건드리서는 득이 될 게 없으며 경제적 관계만이 유효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러 북한 노동자 연구진은 대략적으로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 파악에 나서는데 한편, 총숫자를 1만 5,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현지 노동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러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러시아 내에서 입국·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적·이념적 노선이 같았다는 사실이다. '같았다는 사실'은 일반적 개념이 아닌 주종의 관계에서 해석된다. 둘째, 러시아내 노동력의 절대 부족과 러시아 노동자들의 힘든 업무 거부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 노동자들의 '만만디' 현상과 중부 러시아 및 극동에서 노동력 부재 및 노동 가능 연령층의 대거 서방행 등은 값싸고 양질인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입국을 촉발시켰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만 개혁·개방을 단행한 중국과는 달리 정치·경제 양면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해볼 때,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개혁·개방 정책이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을 촉발시켰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재러 북한 노동자들의 직장내 이탈은 한국 정부에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니다.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러시아는 1989년을 마지막으로 1997년 현재까지 정확한 인구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러 북한 노동자들의 1만 5,000~2만 명선 또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재러 북한 노동자들의 집계는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여 남한행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잠정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은 러시아 연방공화국내 노동이민국에서 공식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집계한 것이다.

〈표 1〉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수 사람들이 실제로 러시아연방국 내에서 거주 내지는 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통계에서 제외

(표 1) 주요국별 러시아연방공화국내 거주 노동자 수(1994년말 현재)

(단위: 명, %)

국가명	총인원	업종별											
		산업		건설		농업		교통		서비스		기타	
북한	5,862	472	8.1	3,907	66.6	1,117	19.1	262	4.5	33	1.6	72	1.2
남한	621	217	34.9	272	43.8	2	0.3	0	0.0	20	3.2	110	17.7
영국	488	41	8.4	17	3.5	1	0.2	2	0.4	27	5.5	400	82.0
베트남	1,047	125	11.9	42	4.0	1	0.1	1	0.1	238	22.7	640	61.1
독일	421	20	4.8	117	27.8	0	0.0	0	0.0	41	9.7	243	57.7
인도	474	0	0.0	138	29.1	0	0.0	0	0.0	224	47.3	112	33.6
이탈리아	626	14	2.2	445	71.1	0	0.0	5	0.8	47	7.5	115	18.4
중국	20,301	1,050	5.2	9,126	45.0	6,506	32.0	341	1.7	921	4.5	2,357	11.6
몽고	615	43	7.0	498	81.0	0	0.0	0	0.0	2	0.3	72	11.7
폴란드	1,939	3	0.2	1,768	91.2	0	0.0	0	0.0	54	2.8	114	5.9
터키	12,068	9	0.1	11,747	97.3	0	0.0	0	0.0	23	0.2	289	2.4
핀란드	588	68	11.6	364	61.9	0	0.0	0	0.0	43	7.3	113	19.2
(前)유고연방	4,002	548	13.7	2,976	74.4	0	0.0	321	8.0	37	0.9	120	3.0
불가리아	805	12	1.5	742	92.2	0	0.0	13	1.6	1	0.1	37	4.6
CIS회원국	128,999	28,594	22.4	58,425	45.3	20,700	16.0	7,777	6.0	3,035	2.4	10,108	7.8

자료: 러시아연방공화국 노동이민국.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 노동 인구까지 합산한다면 나라에 따라서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숫자가 러시아연방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직업 구성 및 교육 정도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의 다양성은 이미 국내에 알려진 사실과 같이, 노동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벌목·건설·농업이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최근에 들어서는 직장내 상사와 비합법적으로 합의하여 시장에까지 진출하여,

의류 판매, 농산물 판매, 수송업(트럭 위주)까지 종사하고 있다.

직장 상사가 소위 믿음있고 상업적 재능을 지닌 일부를 선발, 러시아내 중국계 여권 브로커들과 짜고 중국 여권을 500~700 美 달러로 사들인 다음, 러시아거주확인증(200~300 美 달러)을 받아주기 때문에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중국인과 베트남인 행세로 시장에서 상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로 인하여 소위 북한 작업장 내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일고 있으며, 차후 한·중·러·북한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재러 북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작업 조장들이 이들의 북한 귀환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소위 보혐료(뇌물)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다고까지 일컬어질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해외로 선발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고등학교 학력 수준인 고등공민학교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在러 북한 노동자 생활 수준

재러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체류 기간이 1~3년(계약 조건에 따라 약간씩 다름)으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개혁·개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북한이라는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스스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노동 계약 종료 후 귀국하기 보다는 러시아에 남아있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귀로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과 함께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혼돈 상황에 처해 있다.

월급 또한 기존에 알려진 바처럼 50~60美 달러가 아니라 최하 200美 달러를 넘고 있어, 굳이 북한에서 어렵게 살기 보다는 목돈을 모아 돌아간다는 입장에 놓여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100美 달러 이상

의 월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에 다다른 러시아 물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 액수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러시아 경제 현황과 남북한 관계

개혁·개방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정권은 이제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된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더욱이 극단의 길로 치닫던 옐친과 무조건적 반대 일변도의 태도였던 반옐친주의자들의 관계도 국가 경제 복구라는 대명제 앞에서 완충기적인 시절을 맞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대외 경제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권리보호법안에 서명하는가 하면, 의회 역시 특별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에 비하여 경제 운용의 운신 폭이 넓어졌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서방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체들이 속속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전망 또한 무척 밝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한편, 1990년 전후 한국의 對러 외교는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다. 러시아가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61년 체결된 조·소간 우호조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상당히 축소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지지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4者회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반면, 경제 협력 부문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양국 교역량은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9억 달러(對러 전체 무역)에서 1996년에는 40억 달러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對러 투자는 1997년초 현재 1억 800만 달러(실행 기준)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지난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은 매우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러경제공동위원회 및 양국 외무장관회담의 주요 내용도 경제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국은 1990년에 제공된 14억 7,000만 달러의 원리금 상환에 러시아가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이 對러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하였다.

여하튼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완전 진

입하기까지는 다소간의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점차적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을 추종하고 있는 북한 역시 제한적이거나 시장 경제 국가로 다가서는 데는 상당 기간을 요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은 전면적 경제 교류의 관계를 지양하고 다소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여겨지나, 32억 루블에 달하는 북한의 구소련 채무 문제는 양자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한국을 자국 시장에 적극 유치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는 러시아가 32억 루블 대북한 집행 차관에 대하여 남한측에 서서히 전달시키려는 의지가 이따금씩 표명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3국 공동 사업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제 러시아 내에는 1, 2차 산업에 대거 진출한 북한의 고품질 노동력이 한국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 자원이 한데 어우러질 경우, 통일 이후까지 통일 한국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가 이루어진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기회주의적 그룹들의 마구잡이식 수출입 성향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표 2〉 러시아 내에서의 가능 사업 분류

	대상 지역	경험의 유무	노동력 확보	남한측 투자 가능성
농림수산업	· 아무르강 유역 · 야쿠티야 · 하바로브스크 · 마가단 · 연해주 · 극동 해상	· 북러간 경험 多	· 이미 확보되어 있음	· 매우 높음
석탄 · 에너지 산업	· 쿠즈바스 · 야쿠티야 · 연해주 · 마가단	· 북러간 경험 多 · 남한측의 꾸준한 접촉	· 이미 확보되어 있음	·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로서는 투자 의욕 상실과 투자액이 부족한 상태
경 · 중공업 분야	· 민영화된 기업군	· 북러간 경험 多 · 남한측의 꾸준한 접촉	· 유휴 노동력 처리	· 정치적 영향이 크게 작용 · 민주화된 차기 정권에서 가능
교통	·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교통망 확충	· 북러간 경험 有	· 이미 확보	· 현재로서는 투자 가능성 희박

〈표 2〉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경제 개방에 따른 준비를 대충 마쳤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측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자본과 약간의 기술력을 덧붙이고 양질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풍부한 자원 등의 개발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예상되는 남북한의 반응

북한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들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마다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남한측이 북한 노동자들의 직장내 이탈에 대해서 종전의 방식처럼 무조건 수용에서 선별 수용이라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사유는 사라진 셈이다. 더욱이 황장엽氏와 장승길氏 등의 망명으로 인하여 메가톤급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정치적 문제보다는 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북한의 반응은 호의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한측으로서는 계속되는 국내 경기의 침체와 외화 가동률 부족으로 인하여 주춤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한국 역시 거부할 커다란 대의 명분은 없으며, 민족 화해와 21세기 통일 한국 창출의 밑거름을 형성시킨다는 면에서 볼 때 응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문제
이므로 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생각한다면
정부 또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여겨진다. **○**

맺음말

이제까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의 위상과
자질 및 러시아 시장 진출에 따른 제반 문제
를 살펴보았다. 본인이 러시아내 북한 노동
자 그룹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
까닭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상적 문제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이 김일성의 주체사
상을 버렸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주
체사상보다는 경제 희생에 혈안이 되고 있는
김정일체제가 이를 간접적으로 목인할 것이
라는 사실과 남한·북한·러시아 3국에 공히
플러스적 요인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고품질의 결과를 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1세기 통일 한국 준비를 위해서
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며, 차후에 과
감한 접근과 이를 통한 노동력 활용이 절실
한 시기이다.

참고 문헌

·강원식(1996. 12), 「한·러 안보 협력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김인곤(1994. 9), 「한국의 대러 경제 협력
추진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김종일(1995. 9.3), “뜨베리 지역 북한 노동
자와 외국인 노동자”, 「로씨스까야 가제
타」, 모스크바.

「노보예 브레냐」(1997. 1~9 각호), 모스크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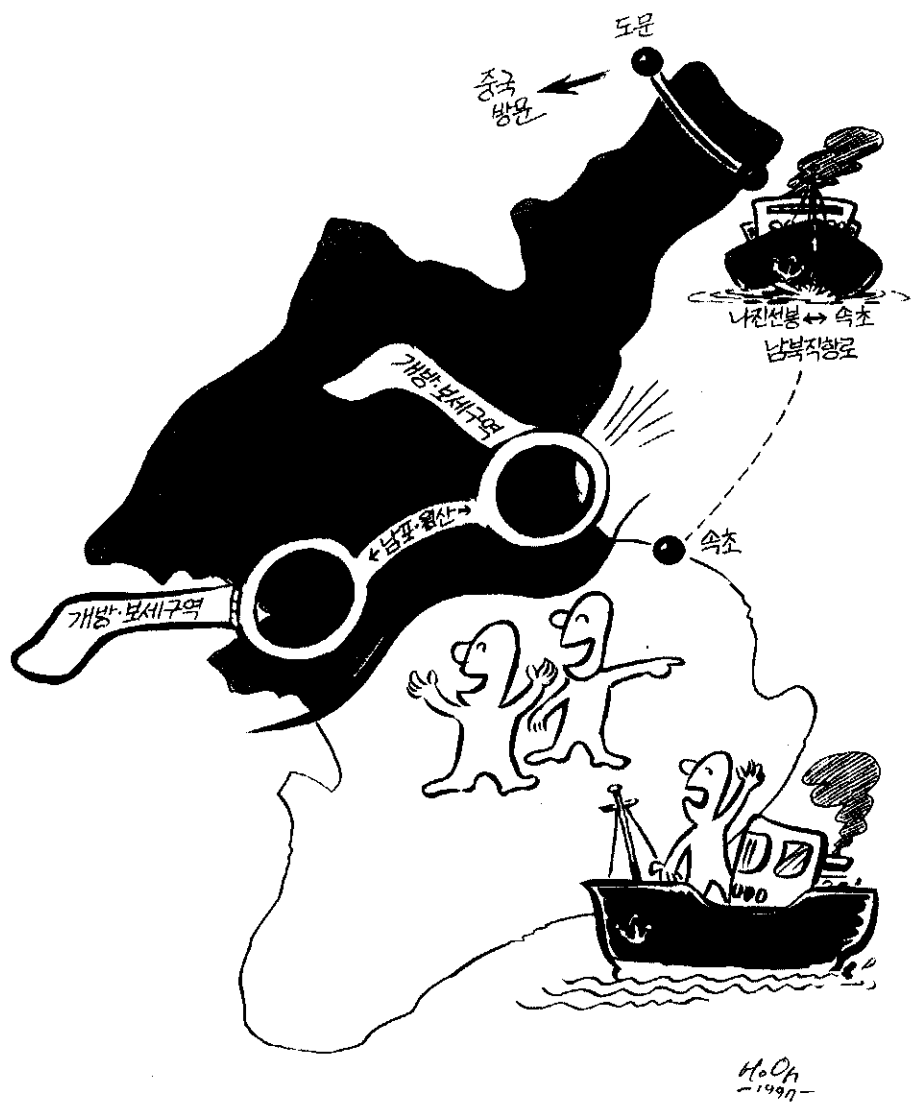
박정동(1996. 6), 「북한의 경제특구: 중국과
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블라디미르 이온체프·김종일(1995. 12),
“러시아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연구”, 「인간과 노동」, 모스크바.

통일원(1996), 「북한경제통계집」.

「한겨레신문」, 최근호.

〈漫評〉 34



“눈을 크게 떠 외부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산다?”